

## 1번

제시문 <가>~<다>는 모두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다.그러나 행위에 범위에 대해 차이를 보인다.제시문 <가>, <나>는 행위의 범위를 개인으로 한정하는 반면 제시문 <다>는 사회로까지 확장시킨다.제시문 <가>에서는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자신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제시문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행위만을 언급함으로써 <가>와 동일한 입장이다.이와 달리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넘어 정부의 정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공리의 원리를 주장한다.

각각의 제시문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다.제시문 <가>에서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파악한다.한편, 제시문 <나>에서는 타인에게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위 할 때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설명한다.

이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제시문 <가>와 <다>는 행위의 결과가 타인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이다.그러나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결과가 타인의 행복을 감소시킨 사례를 제시한다.제시문 <가>에서는 특정한 장점을 본받아 행위할 것을 의무로 제시했다.제시문 <다>에서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의미있는 행위로 파악한다.이렇듯 <가>와 <다>는 개인의 행위를 사회와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시문 <나>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여 아내의 행복감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가 타인의 행복에 얼마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비례한다는 것을 제시한다.이렇듯 제시문 <가>~<다>는 행위의 범위, 행복의 조건, 행위의 결과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

## 2번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가 타인의 행복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그러므로 행복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편차를 중요시하여 얼마만큼의 행복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가를 중시한다.따라서 행복도가 높을지라도 표준편차가 크다면 개인들간의 행복 차이가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작은 국가를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광점에서는 C국가가 이상적이라고 여겨진다.C국가가 B국가에 비해 행복도가 낮을지라도 그만큼 표준편차도 낮기 때문이다.표준편차가 낮을수록 국민들의 행복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특정 국민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비슷하게 행복한 것이다.즉, 국민들의 행복감이 비슷하여 표준편차가 큰 B국가보다 실질적으로 행복의 평등이 달성되기 용이하다.따라서 제시문 <나>에서는 국민들간의 행복의 평등을 고려하여 표준편차가 작은 C국가를 이상적이라 여긴다.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증진되면 사회의 행복까지 증진된다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중요시 한다.공동체의 행복이 개인들의 행복까지 보장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행복도가 높을수록 국민 모두의 행복감이 높은것이라고 파악한다.그러므로 표준편차를 고려하기 보다는 행복도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공리의 관점에서는 B국가를 이상적으로 여긴다.C국가에 비해 B국가가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높기 때문이다.B국가는 표준편차가 C국가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제시문 <다>는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사회의 행복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제시문 <다>에서는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높은 B국가를 이상적으로 여긴다.